제주 만끽하며 기부… '은륜의 향연' 빛났다

제주도·관광공사 주최·주관 '2019 제주 그란폰도'
자전거 동호인 720여명 발걸음… 뜻 깊은 기부 동참
키즈바이크챔피언십·말등대 마트 등 즐길거리 풍성

자전거로 모두가 하나된 축제였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해 지난 19일 제주시 이호랜드에서 열린 '2019 제주 그란폰도'에서 참가자들은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제주 자연을 만끽했다.

올해로 4회째 열린 대회는 비경쟁 장거리 마라톤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이에 맞춰 100㎞ 장거리 그란폰도 코스가 추가됐다. 제주시 이호에서 출발해 애월, 곽지 등을 거쳐 반환점인 무릉사장로 교차로에서 돌아오는 그란폰도 코스는 자전거 마니아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30㎞ 해안도로 투어 코스에서도 제주 바닷바람을 가르는 은륜의 향연이 펼쳐졌다. 이날 대회에는 자전거 동호인 720여명이 함께했다.

MTB 종목에 참가한 김병학(60)씨는 "바람이 조금 분 것을 빼곤 날씨가 좋아 경치를 즐기기에 좋았다"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완주했다는 것도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선을 보인 키즈바이크챔피언십에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과정이 빛난 경기였다. 자전거를 타다 쓰러져도 툭 털고 일어서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는 물론 어른 참가자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아들 김민범(4) 군과 함께 대회를 찾은 장연심 씨는 "아이가 두 발 자전거에 처음 도전했는데, 어려웠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에 뿌듯했다"며 웃었다.

자전거를 타기만 해도 기부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T-캠페인(T-campaign)'도 펼쳐져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모든 참가자가 자전거로 누빈 거리가 1㎞ 당 약 100원으로 적립됐으며, 그 금액 만큼의 자전거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됐다.

캠페인에 함께한 가수 이정은 "(기부하는 데 더 보탬이 되도록) 보다 긴 코스에서 자전거를 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주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대로 제주에 유익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개그맨 이승윤도 "자전거를 타면서 기부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동참하게 됐다"며 "아름다운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도 컸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편에 열린 '말등대 마트'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도내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이 제주의 특색이 담긴 제품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손수 만든 다양한 기념품과 중고물품, 먹거리를 판매하는 코너도 마련돼 축제의 즐길거리를 더했다.

이번 대회는 한라일보와 제주자전거연맹,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했다. 티웨이항공과 코카콜라, 유한양행, 가민, 아일랜드프로젝트, 바이크트립, 이니스프리 등의 기업도 제품을 후원하고 기부에 동참했다.

다음은 100㎞ 그란폰도 스프린터상 수상자 명단.

▷사이클(남자A) 최윤호 ▷사이클(남자B) 양영모 ▷MTB(남자A) 박민규 ▷MTB(남자B) 황선문 ▷사이클(여자통합) 이의정 ▷MTB(여자통합) 이경희. 김지은기자

지난 19일 제주시 이호랜드에서 열린 '2019 제주 그란폰도'에는 720여명의 자전거 동호인이 참여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막일인 19일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제주도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선수와 지도자 등을 격려했다. 사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제주선수단, 메달 목표 초과 달성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9일 폐막… 메달 103개 획득
배드민턴·수영, 3위·9위 기록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9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수영, 배드민턴 등에서 활약하며 목표 메달을 넘어섰다.

제주도선수단은 올해 장애인체전 마지막 날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메달 사냥을 이어갔다. 그 결과 당초 목표(95개)를 초과하는 총 103개(금 28·은 47·동 28)의 메달을 획득했다. 메달을 가장 많이 낸 수영에선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점수 9위에 올랐으며 배드민턴에선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축구에서도 값진 메달이 나왔다. 제주는 지난 19일 서울과의 결승전에서 전반 두 골을 먼저 터트렸지만 후반 서울의 역습으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 3으로 아쉽게 졌다. 하지만 출전 4년 만에 축구에서 첫 메달을 목에 거는 성과를 남겼다.

제주도선수단은 앞서 지난 18일 치러진 경기에서도 금빛 승전보를 전했다. 육상 T37 200m에 출전한 이동규가 이번 대회 신기록(27.48초)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으며 수영에선 남자부 배영 50m 안창민이 1분 1.75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부 평영 100m 고덕양과 남자부 접영 50m S9 송경조, 남자부 접영50m S6 고준혁, 여자부 접영 50m S9 장희선도 금빛 물살을 갈랐다.

댄스스포츠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이어졌다. 한창우·박영선이 혼성라틴룸바CLASS1과 혼성라틴5종목CLASS1, 강성범·김애영이 혼성라틴삼바CLASS2와 혼성라틴5종목CLASS2, 강성범·오전희가 혼성듀오룸바CLASS2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참가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에 오른 강성범은 제주 간판스타의 면모를 보여줬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박종성 총감독은 "이번 체전을 위해 노력한 각 종목 감독과 코치, 선수들을 비롯해 아낌없이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경북에서 열리는 제40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제주도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이번 체전에서 활약한 선수와 지도자 등을 격려했다. 제주에선 올해 대회에 선수와 임원·보호자 등 403명이 참가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여자축구, 남자축구 이어 북한과 맞붙는다

올림픽 최종예선 북한과 한조
내년 2월 제주에서 조별리그
4강 승리 두 팀이 본선행 티켓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북한과 본선 진출 티켓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18일(한국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하우스에서 진행한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조 추첨에서 북한,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A조에 편성됐다.

B조에는 호주, 중국, 태국, 대만이 묶였다.

아시아 최종예선은 내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나눠 개최된다.

한국이 속한 A조는 제주도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남북대결이 한국에서 열리는 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에는 한국이 북한에 1-2로 패했다.

앞서 2017년 4월에는 북한 평양에서 진행된 AFC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1-1로 비겼지만 한국이 조 1위로 북한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위인 한국은 북한(FIFA 랭킹 9위)과 역대 A매치 상대 전적에서 1승 3무 15패로 크게 뒤처져 있다.

베트남(FIFA 랭킹 34위), 미얀마(45위)와는 각각 상대 전적 10전 전승과 5전 전승으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아시아권에 배당된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은 2장뿐이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국자격으로 자동 출전한다.

최종예선 조별리그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팀은 내년 3월 6일과 같은 달 11일에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승리한 두 팀이 본선에 오른다.

플레이오프에서는 A조 1위-B조 2위, B조 1위-A조 2위가 크로스 토너먼트로 대결한다.

올림픽에서 여자축구는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때 시작됐고, 한국은 아직 한 번도 본선에 진출한 적이 없다.

아시아에서는 중국(1996년)과 일본(2012년)이 한 차례씩 은메달을 땄다. 연합뉴스

테니스 정현, 라오니치와 격돌
21일 이스트방크 오픈 1회전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31위·제네시스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이스트방크 오픈(총상금 229만6490유로) 단식 1회전에서 밀로시 라오니치(30위·캐나다)와 맞붙는다.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하는 이 대회에서 정현은 1회전을 이길 경우 16강에서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17위·캐나다)-안드레이 루블료프(31위·러시아) 경기 승자를 상대한다.

정현의 1회전 상대 라오니치는 2016년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그해 윔블던 준우승, 호주오픈 4강의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무한리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조선로코-녹두전(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쿵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좋은 날 10:45 UHD 특선 드라마 W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장모 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9:30 원더볼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몰랑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카 폴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 17:20 그림을 그려요 19:00 스파이더맨 20:00 머털도사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우영팟 15:50 팔도밥상(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필 샐러드(재) 17:00 썸바이벌 1+1(재)	12:00 12 MBC 뉴스 12:2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13: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6:20 모두 다 쿵따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황금정원(재)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저널리즘 토크쇼 J (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옥탑방의 문제아들 22:00 조선로코-녹두전 22:35 조선로코-녹두전 23:10 다큐멘터리 3일(재)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스트레이트 21: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부 22:35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2부 23:20 지역MBC 공동기획 농업이 미래다	18: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9:00 네모세모 18: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2: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23: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3부	**KCTV** 7:00 KCTV 뉴스 8:30 내 별명은 대토령 9:3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40 KCTV 시청자세상 13:00 KCTV 뉴스 14:30 취미로 먹고 산다 16:10 KCTV 다큐스페셜 17:00 KCTV 뉴스 18:00 대한민국 구석구석 19:00 KCTV 뉴스 7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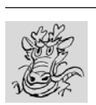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건강에 이상이 오니 휴식이 필요하다. 48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강하다. 형제간 대화가 필요하다. 60년 자녀문제로 애·경사가 있거나 소식이 오면 상면하라. 72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에 전념하라. 84년 반가운 소식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다.

37년 불필요한 선심이 상대의 오해와 후회를 갖는다. 49년 한가지 일로 꾸준함이 남의 칭찬과 인정을 얻는다. 61년 좋은 일과 궂은 일이 교차하니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라. 73년 신경이 날카롭다. 주위에 민감하고 혼자 있길 바란다. 85년 친구나 동료간 불화가 올 수 있으니 상처주는 말은 삼가하라.

38년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거나 내가 방문을 하게 된다. 50년 동료나 거래처 관계인의 만남이나 모임에 참석한다. 62년 시댁 어른이나 처가에 방문이 있거나 외출 등 여행을 한다. 74년 직장이나 취업에 대한 소식이 있으며 할 일이 생긴다. 86년 어떤 일이든 기다림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함이 지혜롭다.

39년 처방전의 효과가 미흡하나 마음의 안정은 있다. 본인 의지가 중요. 51년 실언 또는 실수가 따르니 대화시에는 언행을 조심. 63년 이사 변동 또는 집 내부 변화를 주려 하고 몸이 분주. 75년 불필요한 외출이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87년 이성교제 또는 만남 약속이 생긴다.


40년 경쟁하거나 다투지 마라. 내가 불리하다. 52년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일이 막힌 사람은 일이 호전된다. 64년 내게 타고난 직업에 대해 가끔씩 고민해 보고 바꾸고 싶다. 76년 창업이나 일을 꿈꾼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판단은 흐리게 한다. 88년 이성이 다가오고 직장인은 상사의 칭찬도 따른다.

41년 동료나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53년 배반 배신수가 따르니 행동에 신경 쓸 것. 65년 원행 또는 출타할 일이 생기고 직장인은 신용을 중시해야. 77년 직장인에게 실직, 이동 또는 재취업에 대한 일이 발생하니 신경을 써라. 89년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형국. 하나에 치중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는 날이다.

42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 54년 불필요한 언쟁이 커지니 자제. 66년 새로운 투자나 업무를 추진할 때. 기회가 주어지면 강하게 밀어붙여라. 78년 활동량이 많아지고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90년 조급하면 오히려 일이 막히니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

43년 할일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빈축을 산다. 55년 투자나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보증설정 주의. 67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사소로운 일에 민감하다. 79년 업무나 직장관련 일로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협조가 요청하라. 91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신중함이 필요.

44년 기대를 크게 하는 것보다 현실에 충실. 56년 희망과 큰 야망은 현실의 괴리감을 얻으며 스트레스를 남긴다. 68년 부모님이나 윗어른의 일로 가정이 시끄럽거나 부부 애정문제는 적신호. 80년 동료나, 친구, 형제자매의 불협화음이 있고 이성교제는 적신호. 92년 감언이설에 고민. 보증을 서면 불리하다.

45년 개인사업은 늦게까지 바쁘거나 일이 있다. 57년 사소한 시비는 피하는 것이 상책. 운전조심. 69년 친지 어른이나 거래처의 문제로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81년 다투거나 경쟁을 하지마라. 진정한 승부는 다음으로 연기하는 지혜 필요. 93년 자녀 또는 문서상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46년 원칙에 충실하면 주변에서 인정받는다. 58년 업무와 일에 성과가 있으며 인정을 받는다. 70년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나누어라. 82년 미혼자에게 중매 또는 이성교제가 찾아온다. 94년 기회가 오면 결정을 신속히 하라. 여기에 이득이 있다.

47년 자식의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59년 문서운이 길하며 부모님이나 윗분의 도움이 있다. 71년 동료나 형제자매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 그들의 지혜를 얻어라. 83년 취업이나 업무가 늘어나고 기혼자는 임신, 출산 또는 기쁨이 있다. 95년 나눔과 양보가 큰 힘이 되는 때.